

지역 소식통

부안군, 국민신청실명제
연중 상시 운영

부안군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국민은 물론 부안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문서 24(<https://open.gdc.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부안군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운영)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국민신청실명제로 신청된 사업과 주요 공정 현안에 관한 사항,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다수 국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등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시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정읍시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바뀐 땅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 방법을 통해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올해(4월) 국비 2억원을 투입해 시기동 어울림 플랫폼(청년 주택) 사업부지와 주변 일대(시기지구)를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사업 완료 시 지적 불합합 문제가 해소돼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에 4개 기업 투자 '확정'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총 33억 규모 투자·20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정읍시는 7일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 입주희망하는 4개 강소기업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이들 기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총 33억원을 투자하고, 약 20명을 신규로 고용키로 했다.

협약식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동지쌍화탕 최화호 대표, 선혜청한과 노정호 대표, 토속식품 유미숙 대표, 참누룽지 강오규 대표가 참석했다.

동지쌍화탕(주)(3,581㎡) 올해 새롭게 신설한 법인으로 주 생산품인 쌍화탕을 가공, 판매하는 기업이다. 10억을 투입해 공장을 신축하고 모두 7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40년 전통의 명품 한과를 제조하는 선혜청한과(총 5,686㎡)는 10억원을 투자하고, 3명을 채용한다.

또 누룽지 가공 생산업체는 참누룽지(2,099㎡)는 8억원을 투자 8명을, 전통 옛 생산업체인 토속식품(3,328㎡)은 5억원을 투자 3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투자보조금 지원과 인허가 절차 진행 등의 행정적 제반 필요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최화호 동지쌍화탕(주) 대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읍시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정읍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정읍에 투자를 결정해준 대표님들께 감사 드린다"며 "오늘 협약을 맺은 4개 기업이 정읍

경제를 견인하는 알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는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및 신천리 일원에 230,852㎡(산업용지 163,717㎡)로 조성된 읍·식품 전용 농공단지다.

식품 관련 기업이 입주하면 각종 세제 혜택과 직접 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월 현재 다인 IS를 비롯해 탐이 나식품 등 7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온라인쇼핑몰 '높을고창몰', 본격 판매 돌입

고창군이 공식 온라인쇼핑몰인 '높을고창몰(www.noblegchang.com)'을 지난 5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높을고창몰'은 수도권 유명 백화점 브랜드할 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높을고창 친환경 쌀을 비롯해 지주식 김 황토구운소금 고창수박, 프리미엄 멜론, 보리, 잡곡 땅콩 등 관내 100여개 업체에서 생산·가공하는 고창의 대표 농수축산물을 취급

한다.

높을고창몰 오픈 이벤트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각종 프로모션과 할인 행사를 연다. 회원가입, 첫구매, 리뷰 작성 등에 대해 다양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100원 구매 이벤트, 반값 할인 이벤트 등 우수한 고창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 '고창군이 먹어살릴게' 프로젝트 오픈기간 고창 농수축산물 구매고객중 5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고창

농산물을 1년간 지급하는 톨 큰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오는 21일 정식 오픈에 따른 기념식을 연다. 높을고창몰 오픈을 고창군민과 함께 축하하면서 소비자에게는 고창의 우수 농수축산물이 보다 쉽고 편하게 전달될 수 있고, 고창의 농어축산농가에게는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친환경농업 인증비용 지원 확대

정읍시가 올해 친환경농업 인증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7일 '친환경농업의 생산·가공·유통 주체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2021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사업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는 매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된 민간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료와 심사관리비 등

으로 건당 4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부터 친환경농업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단가를 건당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7개 농가(유기농 86개 농가 167ha, 무농약 농가 87개 농가 115ha)이다.

이와 함께 인증 비용 지원 대상도 기존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에서 '유기 가공식품 및 취급자 인증'까지로 확대했다. 유기 가공식품 및 취급자 인증 지원

은 실소요 비용의 85% 수준으로 유기 가공식품의 인증비는 건당 100만원, 취급자 인증비는 건당 55만원을 지원한다.

4월 현재 정읍에는 유기가공식품 10개, 취급자 12개 업체가 있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정읍지역 친환경 인증 농가와 가공·유통 업체의 경영비가 연간 8,000여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망 농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유기 가공업체 인증서',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인증서' 등의 관련 증명서류 사본과 신청서를 각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최대 관광지인 선운산도립공원이 여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물놀이 시설과 경관 폭포를 만들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생태숲사이로 '시원한시냇물길'

선운산도립공원, 관광객 위한 물놀이시설·경관폭포 사업 추진

고창군 최대 관광지인 선운산도립공원이 여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물놀이 시설과 경관폭포를 만들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선운산도립공원은 한 해 20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관광객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창군은 어린이들은 물론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다.

먼저 선운산 생태숲 일원에 400m의 시냇물길을 만들었다. 바로 옆 선운천에서 깨끗한 계곡물(1급수)을 유입해 시냇물길로 흘러보낸 뒤 다시 선운천으로 합류시키는 친환경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냇물길 중간에는 물놀이와 족욕을 즐길 수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경관폭포는 선운산 도솔재 인근에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다.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40m높이의 자연 암석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물줄기는 관광객들의 여름철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선운산도립공원은 올해 국민여가캠핑장 개장 은행나무 숲 군락지 쉼터 조성 등을 앞두고 있어 여름 휴가철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거듭날 전망이다.

고창군청 김성근 산림공원과장은 "상대적으로 비수기로 여겨졌던 여름철에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선운산도립공원이 대한민국 힐링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읍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신청 접수

정읍시가 내달 28일까지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한다.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제안 가능하며, 정읍시청 홈페이지(www.jongup.go.kr) 또는 우편 접수, 방문 접수 등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대상 사업은 시민 제안사업 5억원, 읍면동 지역회의 발의사업 46억원으로 총 51억원이다.

공모대상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미세먼지 저감 등 주요 현안 사업과 ▲적은 예산으로 생활 주변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민 편의 사업 등이다. 다만, 법령 위반이나 특정 단체 지원, 보조사업, 영입·판매 목적 사업, 일반 행사성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심의(9월~10월 중)를 통해 최종 선정 후 정읍시의회(11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읍시의 2021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사업은 모두 177건 46억2,000만원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비롯한 정읍시의 주민참여예산 운용 계획 등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jongu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천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당 당국의 충실한 지구가 대한 공산품 효율적으로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